

사회

광주 설월여고 찾은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

“여고생이여 호기심 갖고 도전하라”

“바깥세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힘든 일에 도전하는 모험심을 가져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13일 광주 설월여자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만났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1시간동안 설월여고 대강당에서 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학생들과 질문·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설월여고 영자신문인 ‘설월 타임즈’ 배지성(3학년) 편집장의 편지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스티븐스 대사는 “고교시절은 인생에 있어서 대학 진학과 미래의 진로, 남자에 대한 관심 등 너무 많은 과제가 주어지는 시간”이라며 “이 시기는 인생을 결정짓는 시기고, 고민도 많은 시기인 만큼 친구·부모님·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고교 시절은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신력과 체력 향상 등 모든 면에서 균형잡힌 성인으로 성장하는 힘도 얻게 되는 만큼 스트레스를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여성) 외교관이 되는 법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함께 위안전 등을 통해 역사적 인물을 많이 접하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모험심도 가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이 지구촌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게 되고, 좋은 외교관이 되는데도 큰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가 13일 광주 설월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특강을 한 뒤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 교육열 너무 뜨거워 부러움·우려 교차”

“5·18 항쟁 앞장 광주시민에 무한한 존경심”

보람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는 부러움과 함께 우려감도 나타냈다.

스티븐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학생의 실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며 “다만 한국의 너무 뜨거운 교육열이 걱정된다. 열이 너무 높으면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교육열이 너무 뜨거워서 문제고, 미국은 너무 차가워서 문제”라면서 “혹시 미국 고교생

들이 밤 12시까지 공부를 한다면 모두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스티븐스 대사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면서 “여성은 정치적 안정, 국가의 번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여성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여고생들의 재기 발달한 질문에도 성의껏 답해 큰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고교 시절 남자친구를 사귀는 적어 있느냐’는 질문에 “오빠와 함께 남녀 공학에 다녔는데, 덕분에 오빠의 멋진 친구들을 쉽게 사귀 수 있었다”며 활짝 웃었다.

그는 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시민에 대해 존경의 뜻을 밝혔다.

1986년 광주를 처음으로 방문했다는 그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여러 인물을 만났고, 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 5·18 민주항쟁에 앞장선 광주시민들에게도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공무원노조

‘전공노’ 가입 추진

광주시 “투표 원천봉쇄”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가 불법단체로 명시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광주시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대의원 대회를 갖고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시 노조가 대의원 대회를 갖고 전체 대의원 102명 중 70명이 투표해 찬성 46명(76.7%), 반대 23명(32.9%), 기권 1명으로 전공노 가입을 위한 투표를 의결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1일과 22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공노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지원에 따라 불법단체 가입을 불가하다

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무원노조가 노조 규약을 어기고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만큼 대의원대회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며 “대의원대회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원에 따라 총투표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 안건은 7일 전 위원장 직권상정이 가능해 대의원 대회의 하자는 없다”며 “기존에 가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 공무원들의 권리 향상 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전공노 가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곡성 익사 대학생 ‘돈 내기 수영’ 중 사고

지난 12일 오후 6시10분께 곡성군 옥과면 죽림저수지에서 발생한 전남 모 대학 1년 양모(20)씨 익사 사고(본보 4월 13일자 6면)는 돈 내기 수영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곡성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전날 학과 학생 110명과 체력훈련을 하던 중 다른 학생 2명과 적선거리 70~80m의 저수지를 헤엄쳐 건널 수 있는지를 놓고 돈 내기를 하다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양씨는 “저수지를 건너

면 현금 3만원을 주겠다”는 한 선배의 제안에 따라 동급생들과 함께 수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부사관을 양성하는 이 학과 1~2학년 학생들과 군(軍) 장학생 선발에 대비한 체력훈련을 하려고 곡성의 저수지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학과 학생 등을 상대로 이날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나원침 (8085) 김장두



새벽에 빈 상점·약국 텅어

광주북부경찰은 13일 새벽 시간대 빈 상점과 약국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서모(33·장성군 진원면)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 11일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강모(46)씨의 사진관 출입문을 노루발못뿔이(일명 빠루)로 열고 들어가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서 등 30차례에 걸쳐 총 1천 7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정희 묘역에 현금 500만원 돈다발

○국립서울현충원의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현금 500만원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수소문.

○13일 현충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30분께 박 전 대통령 묘역 향로 옆에 1만원권이 100장씩 묶인 돈통 5개가 놓여 있는 것을 현충원 경비원이 발견.

○유실물 습득 신고를 접수한 서울 동작경찰은 현충원 폐쇄회로TV 화면을 확인했지만, 문제의 500만원을 두고 간 사람의 신원 파악에 실패. ○경찰은 12일 사이버경찰청 ‘습득물마당’에 돈의 주인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올렸으며, 1년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을 국고로 귀속시킬 계획. /연합뉴스

나주·목포시장 예비후보자·운동원 고발

선관위, 선거법위반 혐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주와 목포 등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적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13일 나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시장추대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농민회장 B씨와 여성단체 간부 C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또 지난 4년간 학생 40명에게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민운동단체 대표자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나주시장 예비후보자 D씨와 단체대표 E씨 등 2명을 검찰을 고발했다.

이와 함께 도 선관위는 현지 목포시장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매모임을 주도하고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4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F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충장로 횡집·관천동 카센터에 불

13일 새벽 4시35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횡집에서 불이 나 내부면적 429㎡와 병장고·탁자 등 집기를 태우고 소방서추산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 오전 2시30분께에는 서구 관천동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나 내부면적 150㎡를 태우고 소방서추산 2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횡집과 카센터 모두 영업을 마친 뒤 출입문을 잠그고 나왔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서 아파트에 불
쌍둥이 자매 질식사

13일 오후 6시30분께 순천시 연향동 S아파트 15층의 박모(52)씨 아파트 다락방에서 불이 나 중학교 3학년 인 쌍둥이 자매(15)가 연기에 질식사했다.

이 불로 다락방 내부면적 39.6㎡가 모두 불에 탔다. S아파트 폭대기층은 다락방 구조로 돼 있다. 당시 박씨의 집에는 쌍둥이 딸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서는 쌍둥이 자매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두 켤레가 발견됐다. 시신은 순천 모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숨진 박씨의 쌍둥이 딸이 다락방에서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Large advertisement for Seoul Gosihakwon (서울고시학원) featuring recruitment for police officers (경찰직) and various exam preparation course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 list of services, and promotional text.